

## 불법 이민자 정책과 드림법안(Dream Act)

미국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이민자 정책 역시 주요 논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미트 롬니 전 메사추세츠 주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화당 경선 후보들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 드림법안 (Dream Act)을 반대하고 불법 이민자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민법안이 의회에 상정된 28 개의 주 가운데 작년 이민법이 통과된 주는 애리조나를 시작으로 조지아, 유타, 인디애나, 알라바마 등 반이민정책을 찬성하는 주들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주에서는 공립학교에 불법 이민자 자녀를 신고하고, 병원에서도 이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애리조나주는 불법 이민자 정책 강화 후 10 만명이 넘는 인구가 줄었고,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고용인력은 물론 소비자가 줄면서 주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히스패닉계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이민자들을 외면하면 장기적으로 정치적 지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1100 여명의 불법 이민자 처리와 관련,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불법체류자들에 한해 단계적, 선별적으로 구제하자는 입장입니다.

불법이민자들이 많은 히스패닉계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우호적인 것도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당시,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 개혁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임기동안의 불법 이민자 국외추방 건수가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보다 두 배나 많은 40 만건에 달했습니다.

재미 한인 수는 250 만명 (공식 통계 142 만명) 정도이며 이 중 50 만명 정도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정부는 전통적으로 이민에 관대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과 단속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01년 8월에 딕 더빈, 오린 해치 의원에 의해 처음 발의된 드림법안 (Dream Act: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s)이 공화당에 의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은 법안 발의 전에 미성년자 때 미국에 와서 5년이상 거주한 미국 내 고등학교 졸업자가 법이 말하는 좋은 윤리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불법체류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영주권을 준다는 것이 법의 골자입니다. 또한 미국 군대 2년근무나 미국내 4년제 대학을 2년을 마쳤을 경우, 6년간의 임시 영주권을 허락하며, 6년 후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명예제대를 했을 경우, 영주권을 준다는 법입니다. 이 법안은 경제위기로 인해 반이민적 정서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발의되지 못했고, 2011년에 다시 의회에 소개되었으나 여러 공화당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7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California Dream Act)를 입법, 불법체류자 학생들 또한 사립대학의 장학금을 받게 하고, 같은 해 8월 일리노이주는 합법, 불법체류자 학생들을 위한 사립장학재단을 승인하는 등 불법체류자에 대해 관대한 이민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민정책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은 정치적,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찬성과 반대로 늘 나뉘어있습니다. 이민법 역사적으로도 미국이민초기 시절 중국이민자들에 대한 배타적인 인종차별적인 법이 명확하게 입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재미한인사회는 어떻게 우리에게 우호적인 이민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인사회에는 미국 이민정책에 영향력을 끼칠 힘이 이미 있습니다. 성 김 재한 미국대사, 마크 김 버지니아 주 하원 의원, 또 최근 발탁된 김용 세계은행 총재(전 다트머스 대학 총장) 등 특히 오바마 정부 들어서 한국계 인사들이 더욱 발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한인사회의 하나된 목소리 내기가 있다면 정치적인 문맥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리란 법이 없지요.

또한, 한인사회에는 경제적인 영향력이 이미 있습니다. 한 예로 알라바마 주에 설립된 현대자동차 공장은 여러 주들의 경쟁속에서 경제가 거의 죽어가던 알라바마를 선택, 주와 도시의 고용과 소비경제에 큰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과 한인들의 이민 또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최근 알라바마 주는 매우 반이민적인 법을 통과,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고, 이민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으로는 외국인이라 의심되면 아무때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어떤 공교육도 받을 수 없으며, 불법체류자에게 차를 태워주거나 취직을 시켜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불법체류자에게 물과 전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준 한인사회가 이민정책에 대한 의견을 낸다면, 주정부, 주 대법원이 듣지 않을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본국에서 온 각각의 다양한 인종과 사회가 각자의 목소리를 내며, 어우러져 가는 샐러드 볼(Salad Bowl)과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 한인사회 역시 이러한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이민법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스티브 서 변호사 사무실

(617) 877-3435

웹사이트: [www.stevesuh.com](http://www.stevesuh.com)